

# 2026 투쟁속보 16호

## 주차제도 개선안에 대한 입장

- 발행일 : 2026년 6월 23일 (화)
- 발행인 : 정안석 지부장
- 대표전화 : 032-743-0053

### 출퇴근 권리 침해하는 주차제도 변경안! 현장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라!

#### 인천공항 주차제도 변경안 주요 내용(7.16 시행 예정)

##### 자회사 노동자

- T1 근무자: 장기 주차장 P4만 이용  
(오전 6:30 이전 출근자 주차타워 4층만 가능)
- T2/2청사 근무자: 장기 주차타워만 이용  
(오전 6:30 이전 출근자 청사 주차장 이용가능)
- 단기 주차장 3시간 이용권 폐지

##### 인천공항공사

- T1 단기 주차장 1층 C,D구역
- T2 제2청사 주차장 전구역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자회사 경영진 면담에서 주차제도 개선에 따른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 저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각 자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주차제도 변경안 설명회의 내용은 현장 노동자의 출퇴근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모·자회사 간 차별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터미널 근무자는 공항공사 374명, 자회사 7391명입니다. 그러나 변경안은 공사 직원들에게 T1 단기, T2청사 전구역 이용을 보장하고 자회사 직원은 장기만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부는 국토부 감사 이후에도 공사 직원 편이만 우선하며 또 다른 차별을 낳는 주차제도 변경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변경안으로 예상되는 출퇴근 대란이 고스란히 여름 성수기 여객 안전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B형	- 상주직원(公社, 상주기관) - 업무용 차량(公社, 상주기관, 자회사) - 항공사 및 입주업체 (대표급 직원 출퇴근 차량)	② 단기P (지상 1층 C, D 구역)
C형	T1 해당사항 없음	
D형	- 상주직원 (자회사, 입주업체, 항공사)	③ 장기P (타워 4층) ④ 장기P (P4 구역)

T1 주차권 변경안

B형	- 상주직원 (公社, 상주기관) - 업무용 차량 (公社, 상주기관, 자회사) - 항공사 및 입주업체 등 (대표급 직원 출퇴근 차량)	② 제2합청P (전 구역)
D형	- 상주직원 (자회사, 입주업체, 항공사)	③ 장기P (타워 4-5층)

T2 주차권 변경안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긴급 대응회의를 소집하고 즉각 투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차별없는 일터 반드시 쟁취하겠습니다.

# 우리의 당당한 요구,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공항 사망사고 관련 트라우마 치료 지원 및 불이익 금지 보장한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장내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사고 목격자, 동료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오니, 심리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트라우마 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업트라우마센터에서 제공하는 트라우마 상담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자가 참여토록 안내·독려하고, 상담 참여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지원

투쟁속보15호(6.19)에서 알렸듯,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노동청장면담에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공항공사의 갑질을 폭로하고, 사고 수습 과정을 도맡은 자회사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노동청은 원청의 포괄적 책임에 공감하며 철저한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만든 첫 결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 노동청 공문 주요 내용

- 1 트라우마 치료 안내 : 사고 수습 및 목격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트라우마 치료가 실시됩니다.
- 2 불이익 금지 명시 : 참여 시 인사상, 업무상 그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노동청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트라우마 치료에 지원하세요!**

**부당한 압박이 있다면 즉각 노동조합에 제보하세요!**

\*신청 희망 시 각 지회 지회장에게 문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